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과 영아기 보육선택*

김유이**·홍경준***

초 록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과 영아기 보육유형 선택간의 관계를 종단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아동패널의 1-10차 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집단중심추세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중심추세분석 결과 여성의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경력단절형',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 '지속참여형'이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경우 출산 후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다가 3~4차 년도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과 보육선택간의 관계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분석 결과 노동시장 참여유형에 따라 보육선택에 차이를 보였다. '지속참여형'은 '경력단절형'에 비해 기관보육, 개인대리보육을 더 선호하였고,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경우 '경력단절형'과 비교하여 직접보육보다는 기관보육을 더 선호하였다. 분석시기인 3차 년도에 '경력단절형'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형'의 노동시간이 유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보육선택은 단순히 선택 시기의 노동시장 참여여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도 함께 고려됨을 알 수 있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동시장 참여유형, 보육선택, 여성의 경력단절, 노동시장 재진입, 집단중심추세분석, 한국아동패널

* 본 연구는 김유이의 2020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 정리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kimyuee@naver.com)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zookie@skku.edu)

I. 서론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노년부양비는 2007년 13.5명에서 2017년 기준 18.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높은 사회비용 지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력이 가장 높은 시기인 동시에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인력 활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는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킨다. 실제로 2009년 기준 53.9%¹⁾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수준인 61.5%가 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금보다 약 1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예지은 외, 2010). 즉,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의 소득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에 큰 낭비다(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 2014).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장려되어야 한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30대가 20대,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은 M자형 구조를 보인다. 구조를 살펴보면 고-저-고의 구조를 보이지만, 첫 번째 ‘고’보다 두 번째 ‘고’의 높이가 더 낮은 형태이다. 두 ‘고’의 높이 차이는 출산과 육아기간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이 그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은 만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윤미례·김태일, 2016). 이 경우 여성노동력은 경력단절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0). 특히 한국은 강한 모성주의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이 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데(최상설·홍경준, 2012), 주로 이 기간에 경력단절이 발생한다. 실제로 2018년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0-2세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40.1%로 3-5세 이용 비율인 86.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보건복지부, 2019b). 즉,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낮은 3세 미만의 아동 돌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및 실업자 비율인 반면 OECD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함. 예지은 외 (2010)의 보고서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기준을 적용함. 2019년 OECD기준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0%, OECD 평균은 65.1%임.

의 문제가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의 중요한 요인이다(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 2014).

여성이 자녀의 보육유형을 선택할 때 현재의 노동시장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후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친다. 모의 취업상황인식과 보육유형을 분석한 연구에서(손경화·조복희, 2010) 미취업 중이라도 취업상황인식을 묻는 응답에 따라 이용하는 보육유형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²⁾. 즉,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장기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유형 선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력단절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선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여성의 보육과 노동시장을 단기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횡단분석을 통해 살펴본 여성의 노동시장은 M자형 구조를 나타내지만,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다양한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윤미례·김태일, 2016).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선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동시장 참여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종단 자료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노동시장 참여여부(취업/미취업)와 종사상의 지위를 사용하여 유형을 도출하였다(김혜연, 2010; 민현주, 2012; 윤미례·김태일, 2016). 하지만 취업여부는 여성의 시간 배분을 분석하기 어렵다. 특히 자녀를 보육하는 여성의 경우 시간제 고용 등 유연한 노동시간을 통해 보육과 노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취업여부 보다는 노동시간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10년간의 노동시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추세방법(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사용한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개인의 생애와 그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관찰기간 동안의 상태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유형을 찾아주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사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도출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취업상황인식을 측정한 변수에서 '아이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미취업모의 경우 '모가 직접(86%) > 시설보육(11%) > 조부모(2%)' 순으로 응답한 반면 같은 미취업모 중에서 '원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의 경우는 '모가 직접(73%) > 시설(18%) > 조부모(8%)' 순으로 답함.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영아기 보육유형과 현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선택에 관해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가능한 모든 보육을 정리하고 유형화해야 한다. 보육을 유형화 하는 방식은 무엇을 초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보육유형화에 주로 언급되는 분류로는 보육의 주체(시장, 가족, 국가)에 따라 분류한 유형(송주미, 2000)과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재정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 있다(박정선, 2000).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주체, 전달체계, 재정을 중심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개별가구의 아동보육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와 달리 카멜(Kremer, 2006)은 보육을 직접 제공하는 보육 제공자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미시적 구분은 개별가구의 아동보육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의 보육선택에 주목하므로 미시적 구분인 카멜의 보육유형을 사용하여 보육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카멜의 보육유형은 5가지로 나뉜다. 모가 주 양육자가 되어 가정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전일제 모성 보육(full-time mother care), 아동의 보육에 모뿐만 아니라 부모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모분담 보육(parental sharind care), 조부모가 주 양육자가 되어 손 자녀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세대 간 보육(inter-generational care), 베이비시터나 보모가 가정(혹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대리모 돌봄(surrogate mather care) 그리고 나머지 유형과 달리 시설에서 전문가에 의해 보육이 이뤄지는 전문가 보육(professional care)이다.

2019년 통계청 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유아의 경우 대부분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만 0-2세의 보육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3개월 이하 아동 비율이 전체 가정양육수당 지원자 중 72%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9a). 이 결과는 강한 모성주의와 영아에게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김진미, 2014). 25개월을 기준으로 시설보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인식은 25개월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손경화·조복희, 2010).

3세 이하의 영아의 가정보육은 모의 직접보육을 위한 반면, 만 4세 이상 아

동의 가정보육은 다른 목적을 지닌다. 양육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별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났다(서문희·이혜민, 2013). 만 1-3세의 경우 ‘가정에서 키우려고’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만 4세 이상부터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다른 곳에 보내려고’에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대상으로 향후 보육시설 이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 만 3세 이하의 그룹에서는 86% 이상이 보육시설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용의사는 만 4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만 5세의 경우 72.1%가 보육시설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이하 아동의 가정보육과 만 4세 이상 아동의 가정보육의 목적이 다를 수 의미한다. 만 3세 이하의 보육시설 미 이용은 모의 직접 보육이 목적이지만, 만 4세 이상의 경우는 보육시설 이외의 기관 이용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³⁾. 즉, 만 4세 이상부터의 가정보육은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직접보육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발달의 측면에서 만 3세 이전의 영아기는 발달이 중요한 시기로 전일적인 보육이 필요한 시기이고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통해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김나영·황선영, 2020). 때문에 영아기의 보육과 유아기의 보육을 구분하여 보육선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육선택은 카멜(2006)의 5가지 보육 방식 중 주 양육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이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시설보육이 증가하여 다양한 보육유형이 시작되면서도 직접보육이 모에 의한 보육으로 고려될 수 있는 시점인 만 3세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선택을 살펴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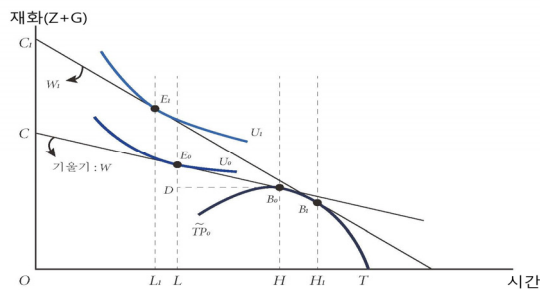
2. 가계생산이론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일반적인 노동공급이론에서는 시간을 시장노동과 여가로 배분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여가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활동이다(로널드·에렌베르크, 2009). 이 현상은 기혼 여성에게 두드러진다(조우현, 2010). 따라서 기혼여성의 정확한 노동공급모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간배분에 가사노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4세 기준 보육기관 외 이용기관 : 기간반일제(34.8%) > 영어 학원(32.6%) > 시간제특기 학원(26.1%) > 시간제 보육(4.3%)

가계생산이론은 일반적인 노동공급이론에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노동공급을 설명한 이론이다. 가계생산이론에서 가계는 단순히 시장에서 최종재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역할뿐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시장 상품을 결합하여 가정재(home goods)를 생산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가진다(조우현, 2010). 따라서 기혼여성은 효용을 최대화하는 시간배분을 선택할 때 가계의 생산과 시장노동의 임금을 모두 고려하여 시간을 배분한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여성의 경우 보육활동이 중요하다.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7)에 따르면 아동자녀가구의 경우 여성의 평균 가사시간(3.02시간)보다 평균 보육시간(3.36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가계노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을 적용하여 가계생산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출산을 한 기혼여성의 총시간은 보육(H), 시장노동(L) 그리고 여가로 구성된다. 여성은 보육을 활용해서 가정재(Z)를 생산하고, 시장노동을 통해 시장생산상품(G)을 생산한다. 이 가계생산함수는 [그림1]로 표현된다.



[그림 1] 기혼여성의 효용 극대화

자료: 조우현(2016) 그림 7-16. p.280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가정재(Z)와 시장생산상품(G)의 합이다. \widehat{TP}_0 는 T지점에서 시작하여 가사노동을 행했을 때 생산되는 가정재(Z)의 양을 나타낸다. 즉, 기혼여성은 \widehat{TP}_0 를 따라 가정재(Z)를 생산하고, 임금(W)의 곡선을 따라 시장생산상품(G)을 획득한다(조우현·황수경, 2016). 시장임금(W)의 기울기와 가계생산함수 \widehat{TP}_0 가 만나는 지점을 B_0 라고 할 때 기혼여성의 최종적인 예산선은 TB_0C 가 된다. 기혼여성의 예산선이 TB_0C 인 경우 기혼여성은 TH 만큼의 보육을 통해 HB_0 만큼의 효용(가정재)을 얻고, HL 만큼의 시장노동을 통해 DE_0 만큼의 효용(임금)을 얻게 되며, LO 만큼의 여가시

간을 가짐으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 한다. 만약 여성의 임금 증가로 임금의 곡선이 더 가파르게 변화하여 W 에서 W_1 로 상승하게 되면 여성은 자신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보육(H)시간을 줄이고 시장노동(L) 시간을 증가시킨다. 반면 보육에 대한 선호가 [그림1]보다 높은 여성의 경우는 무차별곡선이 \widetilde{TP}_0 와 만나며 자신의 시간을 보육과 여가로만 배분하게 된다(조우현·황수경, 2016).

자녀가 성장하면 보육에 대한 효용이 감소하고 보육에 대한 \widetilde{TP}_0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여 W그래프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가계생산에 투자하던 시간은 소득활동으로 전환된다(로널드·에렌베르크, 2009). 즉, 이 시기의 여성은 보육시간을 줄이고 시장노동 시간을 증가시켜 시간활용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자신의 시간을 보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노동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효용을 얻는 유형, 자신의 시간을 시장노동에 투자해 얻는 효용보다 보육을 통해 얻는 가정재의 효용이 큰 유형 그리고 출산 후 증가한 보육의 효용으로 노동시장을 떠나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보육에 대한 효용의 감소로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유형이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민현주(2012)는 출산 전 후 58개월 동안의 노동시장 참여여부를 사용하여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분석하였고, 5가지 노동시장 참여유형이 도출되었다.⁴⁾ 민현주(2012)가 모든 여성을 포함한 반면 윤미례·김태일(2016)은 출산 전 시점에 일을 한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출산 전 2년 ~ 출산 후 7년의 노동시장 참여자료⁵⁾를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이 도출되었다⁶⁾.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참여형과 경력단절형 그리고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으로 나뉘짐을 확인할 수 있다.

4) 5개의 집단은 구성비가 높은 순으로 지속이탈형(51.8%) > 지속참여형(13.9%) > 출산이탈형(13.2%) > 출산 후 진입형(12.5%) > 후기이탈형(8.7%)이다.

5) 노동시장 참여를 4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함
(1: 비경제활동 및 실업, 2: 고용주/자영업자, 3:임시/일용직, 4:상용직)

6) 유형은 구성비가 높은 순으로 경력단절유형(37.3%) > 상용직 유지형(30.6%) >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형(15.2%) > 경력단절 후 복귀형(11.0%) > 지연된 경력단절(5.9%)이다.

3. 노동시장참여와 보육선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선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많은 분석이 이뤄진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보육선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취업/미취업으로 구분한 후 분석한 연구에서 모의 취업여부는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류연규, 2014; 김지경, 2004; 김진미, 2014; 박선옥, 2008; 손경화·조복희, 2010; 윤성호, 2016; 최상설·홍경준, 2012; 하석철, 20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유형 선택을 연구한 김지경(2004)에서 취업모인 경우 보육기관(어린이집, 학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미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모를 기준으로 한 김진미(2014)에서도 미취업모의 경우 개인대리양육, 어린이집보다 직접보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취업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보육과 개인대리보육 선택을 살펴보면 박선옥(2008)은 취업모의 경우 기관보육보다 개인대리보육을 이용할 확률이 미취업모보다 높다고 밝혔다. 최상설·홍경준(2012)에서는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개인대리보육을 선택할 확률은 약 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모의 노동시간과 보육선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모의 노동시간이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진·김은지(2010)에서 전일제 이상 근로(주 36시간 이상)하는 경우 기관보육보다는 친인척을 통한 보육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김영미·류연규(2014)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모의 주당 근로시간이 길수록 직접양육보다는 개인대리양육을 선호하였다. 반면 배성희(2011)는 노동시간이 보육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취업상황이 아닌 취업에 대한 인식도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는 15개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선택과 고용편익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녀를 직접보육하지 않는 부모가 직접보육하는 부모에 비해 고용편익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또 하이드·맥켄리(Hyde and McKinley, 1993)는 모가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수록 대리보육의 시기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식과 보육선택에 관한 국내 연구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손경화·조복희(2010)에서 모의 취업 긍정성이 높을수록 대리보육을 일찍 시작하였고, 개인대리보육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Ⅲ. 연구방법

1. 사용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에 따른 영아기 보육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10차 년도(조사 기준 년도: 2008년 ~ 2017년도)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아동발달의 단계별로 발생하는 양육 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 및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패널이다(한국아동패널, 2020).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1-10차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경로를 유형화 한 후 3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유형별 영아기 보육 유형을 살펴본다. 분석단위는 가구원의 개인이며, 1차 년도의 출생이 첫 출산인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 시점, 즉 경력단절 시기가 첫 번째 자녀출산의 시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민현주, 2012). 또한 본 연구가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변화에 집중한 연구임으로 1차 년도 미취업모를 대상으로 그만둔 시기를 묻는 질문에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은 1차 년도 출산이 첫 출산이고, 출산 전 일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이다.

노동시장 참여유형 분석에는 328사례, 노동시장 참여유형에 따른 보육유형 선택 분석에는 296사례가 투입되었다. 보육유형 선택 분석에 투입되는 사례수가 더 작은 것은 투입되는 통제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2. 사용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아기 보육유형으로 2장에서 논의한 카멜(2006)의 보육유형을 적용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하였다. 카멜(2006)의 보육유형에 의하면 개인대리보육은 친족에 의해 제공되는 ‘세대 간 보육’과 베이비시터 등 외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리모 보육’으로 구분되지만 본 데이터의 개인대리보육은 30케이스 중 27케이스가 친족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둘을 분리하지 않고 ‘개인대리보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한국에서는 아직 ‘부모분담 보육’이 두드러지지 않고, 직접보육의 대부분이 ‘전일제 모성보육’이다(최상철·홍경준,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일제 모성 보육’과 ‘부모분담 보육’을 ‘직접보육’으로 통합하여 보았다.

종속변수는 패널의 3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수는 ‘낮 시간 주 양육자’를 묻는 척도와 ‘보육서비스 이용유형’을 묻는 척도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낮 시간 주 양육자’를 묻는 척도에서 ‘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 ‘직접보육’으로 코딩하고, ‘부모 외’로 응답한 경우 ‘보육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개인대리보육’, ‘기관 보육’으로 코딩하였다⁷⁾.

〈표 1〉 종속변수 정의 및 측정

종속 변수	유형 및 코딩 값		
영아기 보육 유형	직접보육	어머니	1
	개인대리보육	세대 간 보육	2
		대리모 보육	
	기관보육	어린이집	3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 등 기타 기관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복잡한 요소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변수라는 점에 집중하여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유형화한 ‘노동시장 참여 유형’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노동시장 참여유형은 출산 후 10년간의 노동시간 자료를 사용하고,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⁸⁾을 통해 도출한다.

7) ‘반일제 이상 학원(0.7%)’과 ‘선교원 등 기타 기관(0.7%)’은 전문가에 의한 보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관 보육’에 추가하였다.

8) 집단중심추세분석은 배열분석과 유사하게 개인의 생애와 그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관찰기간 동안의 동태적인 상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유형을 찾는 통계분석 방법이다(김진주, 2016). 하지만 집단중심추세분석은 배열분석과 달리 각 그룹의 함수를 직접 추정할 수 있어 배열분석의 한계점인 자의성 문제와 통계 검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박미희·홍백의, 2014). 집단중심추세분석과 유사한 방식인 잠재성장분석은 특정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형태를 살펴보는 방법이다(김진원, 2020). 잠재성장분석의 목적은 변수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성장궤적(growth trajectory)의 절편(intercept)과 기울기(slope)를 분석하여 집단의 평균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와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Duncan and

집단중심추세분석에는 1-10차 년도 모의 주당 노동시간을 투입한다. 모의 주당 노동시간은 주당 노동시간을 묻는 척도와 모의 취업 상태를 묻는 척도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상태에 미취업/미학업으로 응답한 경우 주당 노동시간을 0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휴직 중인 경우는 취업 중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도는 ‘출산한 해 = 1’, ‘출산 1년 후 = 2’, ‘출산 9년 후 = 10’으로 코딩하여 총 10개의 시점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명		변수 설정
종속변수	영아기 보육 유형		직접 보육 = 1, 개인대리보육 = 2 기관 보육 = 3
독립변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유형		10년간의 노동시간 자료를 사용하여 유형화한 결과
통제변수	가구 특성	가구 소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연속변수)
		가구 형태	그 외 = 0, 핵가족(부모 + 자녀) = 1
		주택 점유 유형	자가 = 0, 전세 = 1, 월세 및 기타 = 2
	모의 특성	모의 연령	모의 연령 (연속변수)
		모의 교육수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0, 전문대학 졸업 =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
	지역 사회특성	거주 지역	중소도시 및 읍면동 = 0, 대도시 = 1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경로를 파악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사용한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시간과 행위 간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다항 관계를 사용한다(윤미례·김태일, 2016).

Duncan, 2004; 김진원, 2020에서 재인용). Nagin(2005)은 분석모형의 선택에 있어 잠재성장분석과 집단중심추세분석 선택의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첫째, 잠재성장분석이 ‘개인 간의 차이에 집중하여 자료의 변동을 살펴본다면, 집단중심추세분석은 ‘개인 내’에 집중하여 그룹화 하는 방식이다. 둘째, 집단중심추세분석은 관심 있는 변수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고, 잠재성장분석은 변동추세의 예측변수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발달궤적의 ‘turning-point event’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집단중심추세분석연구는 개인의 발달궤적에서 ‘turning-point event’에 따라 궤적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출산이라는 ‘turning-point event’ 이후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분석하고, 노동시장 참여 형태의 예측변수가 아닌 노동시장 참가 궤적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므로 집단중심추세분석방법이 적합하다.

$Y_i = [y_{i1}, y_{i2}, \dots, y_{iT}]$ 가 개인 I 가 T 시간 동안 나타낸 변수의 종단적 배열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P(Y_i)$ 가 Y_i 의 확률이라고 할 때 집단중심추세분석에서는 모집단이 최대 J 개의 주요 추세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P(Y_i) = \sum_j^J \pi_j P^j(Y_i)$$

집단중심추세분석에서 종속변수인 확률밀도함수 $P^{jt}(y)$ 는 종속변수의 속성에 따라 푸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 절단정규분포(entered normal distribution), 이항로짓분포(binary logit distribution) 등 다양한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다(김혜연, 2010). 본 연구는 종속변수가 노동시간으로 절단정규분포를 사용한다. 절단정규분포는 다항범주를 가정하는 분포로 주로 심리척도에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이 점수화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절단정규분포를 사용한다(민현주·이수경, 2018).

집단중심추세분석은 모집단이 발달궤적에 의해 구별되는 몇 개의 집단으로 이뤄져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Nagin, 1999) 최적의 모형(집단의 수)을 선택하는 것은 궤적함수에 비춰서 데이터에 잘 맞는 최적의 집단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희·홍백의, 2014). 이때 집단중심추세분석에서는 각 집단의 궤적과 사례 수 비율을 함께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한다(민현주·이수경, 2018). 최적의 집단 수는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한 모형의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통해 결정되고, BIC 값이 가장 작은 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선택된다(Nagi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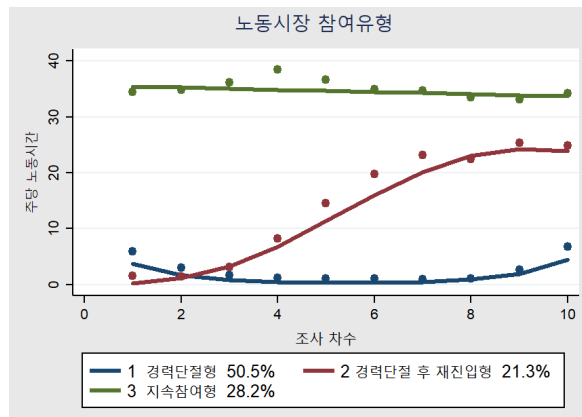
$$BIC = \log(L) - 0.5 * \log(n) * (k)$$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10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노동시장 참여유형과 3차 년도 보육선택과의 관계를 다항로지스틱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집단중심추세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경로를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별 주당 노동시간을 나타내며 X축은 시간의 흐름을 Y축은 주당 노동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 분석결과

1번 유형은 3가지 유형 중 가장 큰 비율로 전체 분석대상자 중 50.5%가 속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주당 노동시간이 0인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연구대상이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이 유형은 결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집단이다. 이 유형은 시장 노동보다 가사노동 효용이 더 큰 ‘경력단절형’으로 볼 수 있다. 취업여부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분석한 민현주(2012)에서는 출산 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유형의 비율이 13.2%로 분석되었고, 노동시장 참여형태⁹⁾로 분석한 윤미례·김태일(2016)에서는 37.3%로 관측되었다. 민현주(2012)에서는 출산 전에 노동시장에 참여하

9) 노동시장 참여를 4가지로 구분함. (1:비경제활동 및 실업, 2:고용주/자영업자, 3:임시/일용직, 4:상용직).

지 않은 여성도 분석에 투입했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¹⁰⁾. 윤미례·김태일(2016)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에는 ‘경력단절형’ 외에도 지연된 경력단절형¹¹⁾이 포함되어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 지연된 경력단절형도 ‘경력단절형’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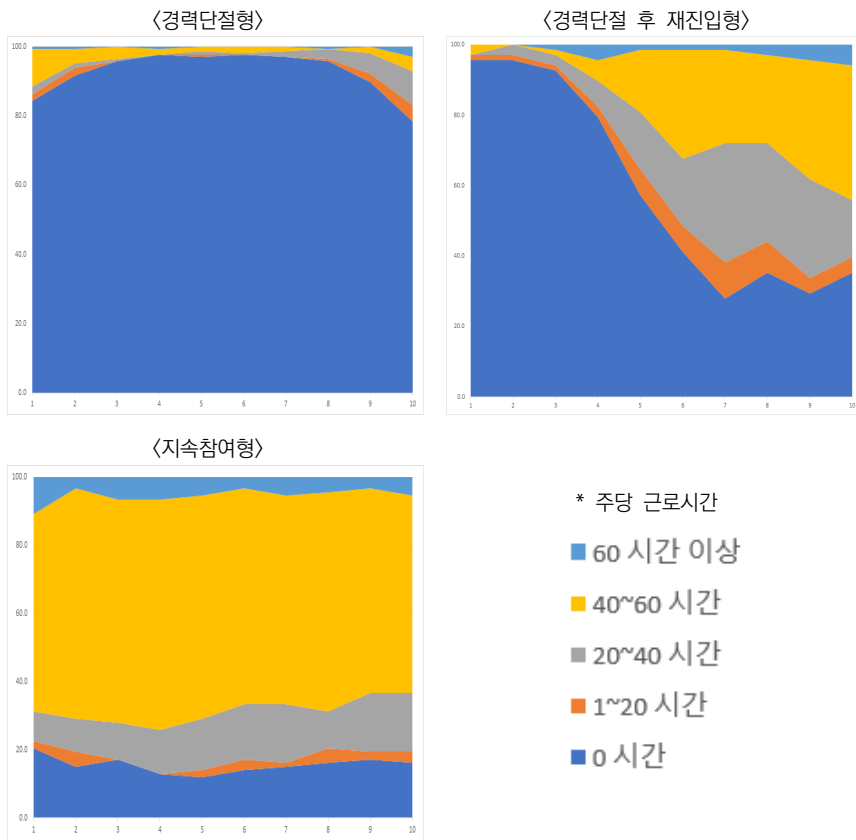
3번 유형은 28.2%의 분석대상자가 속하며 ‘경력단절형’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경력단절형’과는 달리 유형의 대다수가 출산 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가사노동에 대한 효용보다 시장노동에 대한 효용이 높아 자신의 시간을 시장노동에 배분하는 ‘지속참여형’이다. 이 유형은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비율이 낮다. 취업여부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분석한 민현주(2012)에서는 지속참여형의 비율이 13.9%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로 유형을 분석한 윤미례·김태일(2016)에서는 ‘지속참여형’이 상용직 유지(30.6%)와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형(15.2%)로 분리되었고 두 유형의 합은 45.8%로 높게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지속참여형’이 28.2%로 나타나 결과에 차이가 있는데 윤미례·김태일(2016)의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형이 본 연구에는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번 유형을 살펴보면 3가지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낮은 21.3%의 사례가 해당된다.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3차 년도까지는 ‘경력단절형’과 동일하게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차 년도를 기준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한다. ‘경력단절형’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이 유형은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이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출산 후 높아진 가사노동의 효용으로 노동시장을 떠나 자신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배분한다. 하지만 자녀의 성장으로 보육에 대한 효용이 감소하자 자신의 시간을 다시 노동에 배분한다. 민현주(2012)에서는 분석대상에 출산 전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이 아닌 출산 후 진입형이 도출되었고 그 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윤미례·김태일(2016)에서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11%로 본 분석의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 했듯이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15.2%)가 본 분석의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에 포함됨으로 총 비율은 26.2%로 본 연구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이다.

10) 민현주(2012)에서 노동시장을 지속적으로 이탈한 유형은 51.8%로 나타난다.

11) 윤미례·김태일(2016)에서 사용된 ‘지연된 경력단절’은 출산 직후엔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출산 후 4~5년 사이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집단이다.

종합해보면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출산 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력단절형’, 출산 후에도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한 ‘지속참여형’, 출산 후 노동시장을 이탈하지만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이다.



[그림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 분포

[그림 3]은 노동시간 참여유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비율을 보여준다. ‘경력단절형’을 살펴보면 1, 9, 10차의 일부분을 제외하면 주당 근로시간 0시간 비율이 90%이상이다. 또한 1차를 제외하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비율은 5% 미만이다.

‘지속참여형’을 보면 ‘경력단절형’과는 반대로 주당 근로시간 40~60시간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속참여형’에서 주당 근로시간 0시간의 비율은 11%~20%이다. 이 수치만 보면 ‘지속참여형’에 ‘경력단절형’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 0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경력단절형’은 주당 근로시간 1시간 이상이 3년 연속인 경우가 3케이스(8~10차 2개, 1~3차 1개)인 반면 ‘지속참여형’은 주당 근로시간이 0시간인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1차 년도 기준 3년 연속 0시간인 케이스 2개). 즉, [그림3]을 보면 주당 근로시간 0시간인 경우가 존재하지만 동일 여성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또한 ‘지속참여형’의 1차시기 0시간 비율이 20%를 넘기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출산 후 노동시장을 이탈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은 여성과 함께 ‘지속참여형’으로 구분 될 수 있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참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을 살펴보면 1~2차시기까지는 ‘경력단절형’보다 근로시간 0시간 비율이 높다. 하지만 3차 년도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0시간 비율은 급속도로 감소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3~7차 년도에 이뤄짐을 알 수 있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출산 후 노동시장을 떠났다는 것 이외에도 ‘지속참여형’과 근로시간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 ‘지속참여형’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40시간인 비율이 10~20% 수준인 반면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주당 근로시간이 1~40시간인 비율이 최대 44%(7차 년도)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일자리 유형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일자리 질 하락을 밝히고 있다(권순원·이영지, 2010; 김지경·조유현, 2003). 주당 노동시간이 1~40시간인 경우 전일제/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시간제/비정규직 노동은 노동시장 참여와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의 경우 현재 가정 내 역할과 마찰이 적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박수미, 2003).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를 탐색하고 그 결과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구명숙·홍상욱, 2005).

저자는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장기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유형은 출산 초기의 단기 자료만을 통해 분석할 경우 ‘경력단절형’과 함께 분류된다. 하지만 10년의 장기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은 ‘경력단절형’과 다른 특징을 지닌 유형이다. 또한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단지 노동시장을 잠시 이탈한 후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 하락을 경험하여 경력단절 전만큼의 노동을 하지 못한다. 이는 출산 후에도 노동시장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속참여형'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두 유형과 달리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특성

본 분석에 앞서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경력단절형'의 평균 연령이 31.75세로 가장 높았고, '지속참여형'이 31.56세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이 31.06세로 나타났다.

모의 교육수준에서 '지속참여형'을 보면 4년제 졸업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동시에 높다. 이 결과는 '지속참여형'이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두 그룹의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력단절형'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지만 전문대 졸업의 비율과 합하면 '지속참여형'의 비율보다 높다. 이 결과는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높고, 한번 노동시장을 이탈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 소득을 보면 '지속참여형' >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 > '경력단절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동시장의 참여여부에 따른 임금 차이로 볼 수 있다. 다만 '경력단절형'과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평균임금 차이가 10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은 것은 분석 시기인 3차 년도엔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 역시 노동시장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주택점유유형을 보면 자가 점유의 비율은 '지속참여형'이 가장 높지만 전세 비율은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이 가장 높았다. 모의 교육수준에서 '지속참여형'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 것처럼 주택점유유형도 자가와 월세 및 기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교육수준 분석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지속참여형'이 두 개의 상의한 특성을 지닌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지역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것 보다 대도시에 거주할 때 일자리의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대도시 거주 여성이 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영선, 20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형'과 '지속참여형'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중소도시 및 읍면동의 비율이 65%로 대도시 35%에 비해 높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가구형태를 보면 ‘경력단절형’과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핵가족의 비율이 90%가 넘는 반면 ‘지속참여형’은 8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주요변수 기술통계

		합계	경력 단절형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	지속참여형
유형		296	152 (51.4%)	61 (20.6%)	83 (28%)
모 연령(세)		31.56	31.75	31.06	31.56
모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5	34 (22.4%)	13 (21.3%)	28 (33.7%)
	전문대 졸업	88	51 (33.5%)	21 (34.4%)	16 (19.3%)
	4년제 대학 이상	133	67 (44.1%)	27 (44.3%)	39 (47.0%)
균등화 소득 (만원) ¹²⁾		206.31	179.82	187.70	268.52
주택 점유 유형	자가	130	70 (46%)	20 (32.8%)	40 (48.2%)
	전세	124	63 (41.5%)	33 (54.1%)	28 (33.7%)
	월세 및 기타	42	19 (12.5%)	8 (13.1%)	15 (18.1%)
가구 형태	핵가족	268	140 (92.1%)	57 (93.4%)	71 (85.6%)
	그 외	28	12 (7.9%)	4 (6.6%)	12 (14.5%)
거주 지역	대도시	132	69 (45.4%)	21 (34.4%)	42 (50.6%)
	중소도시 및 읍면동	164	83 (54.6%)	40 (65.6%)	41 (49.4%)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과 영아기 보육선택

노동시장 참여유형이 영아기 보육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관보육과 직접보육 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시장 참여유형, 모의 교육

12) 균등화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임.

수준, 모의 연령, 주택점유유형이 보육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참여형’과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경력단절형’에 비해 기관보육을 선택할 확률이 4.7배, 1.8배 높았다. ‘지속참여형’이 기관보육을 선호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보다 기관보육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미·류연규, 2014; 김지경, 2004; 김진미, 2014; 박선옥, 2008; 손경화·조복희, 2010; 윤성호, 2016; 최상설·홍경준, 2012; 하석철, 2018). 또한 이 결과는 2장에서 논의한 가계생산 이론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지속참여형’의 경우 보육에 의한 효용보다 시장노동에 대한 효용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직접보육하기보다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대신 자신의 시간을 시장노동에 배분하여 효용을 최대화한다.

이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3차 년도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은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도 ‘경력단절형’과 보육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3차 년도 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이고, ‘경력단절형’의 노동시간은 1.9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다¹³⁾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의 보육유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 당시의 노동시장 참여여부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미취업모에 대한 연구에서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보육을 통한 자녀의 발달을 돕기 위함 뿐 아니라 취업준비를 위한 이유도 있었다(강경미·이승연, 2016). 이때 취업준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와 미래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이다.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기관보육 시간을 이용하여 면접을 보거나 일자리를 탐색하였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인적자본 향상을 꾀하거나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을 목표로 하였다. 강경미·이승연(2016)에 의하면 미취업모가 취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를 위해 예상하는 취업시기보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였다. 즉, 3차시기 같은 미취업상태를 보이더라도 ‘경력단절형’과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보육에 대한 접근은 다르다.

개인대리보육과 직접보육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시장 참여유형, 모의 교육수준, 거주 지역이 보육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지속참여형’은 ‘경력단절형’에 비해 직접보육보다는 개인대리보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267배 높았다. 이 결과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선택을 살펴본 최상설·홍경준(2012)의 결과와 모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보육선택

13) ‘지속참여형’의 3차 년도 평균노동시간은 35.2시간임.

을 살펴본 김영미·류연규(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경력단절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기관보육과 직접보육간의 선택에서는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과 ‘경력단절형’이 보육선택에 차이를 보였지만, 개인대리보육과 직접보육간의 선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분석에 투입된 개인대리보육의 사례수가 작았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⁴⁾.

기관보육과 개인대리보육 분석결과 노동시장 참여유형, 모의 연령, 주택점유형태, 거주 지역이 보육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지속참여형’은 ‘경력단절형’에 비해 기관보육보다는 개인대리보육을 선호하였다. 본 분석에서 투입된 개인대리보육의 90%가 친족(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이라는 점에서 ‘지속참여형’의 조부모 보육 선호가 나타난 결과이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대리보육자의 존재는 모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리보육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더 장기적인 시장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김지경·조유현, 2003). 기관보육보다 조부모보육이 강조되는 것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강한 가족주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영, 2015). 취업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부모의 시장노동시간 대비 보육 서비스 운영 시간의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아 외, 2010). 이 결과는 기관보육이 일하는 부모가 필요로 하는 보육시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조부모 보육은 보육시간의 유연성을 꾀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조부모 보육에 대한 선호는 강한 가족주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강한 가족주의 안에서 부모는 비친족에 의한 돌봄 상품보다는 조부모에 대한 돌봄을 선호한다. ‘지속참여형’이 ‘경력단절형’과 보육선택의 차이를 보인 것과 달리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보육선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대리보육의 사례수가 작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4) 분석에 투입된 개인대리보육의 사례 수는 30개(10%)로 직접보육과 기관보육이 각각 49%, 40%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임.

〈표 4〉 영아기 보육유형 선택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영아기 돌봄 유형						
			기관보육 /직접보육		개인대리보육 /직접보육		기관보육 /개인대리보육		
변수명			B	Exp (B)	B	Exp (B)	B	Exp (B)	
노동시장 참여유형 (ref.= 경력단절형)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	0.580	1.792 ⁺	0.058	0.000	11.778	206520.7
			지속참여형	1.729	4.684 ^{***}	295.4171	267.530 ^{***}	0.019	0.018 ^{***}
모 특성	교육수준 (ref.= 전문대 졸업)	고등학교 졸업	0.377	1.042	1.174	1.376	0.630	0.757	
		4년제 대학교 졸업	0.681	2.172 [*]	4.845	6.077 [*]	0.277	0.357	
	연령		0.378	0.924 ⁺	0.110	1.139	0.075	0.811 ⁺	
가구 특성	균등화 가구 소득		0.001	1.001	0.001	1.001	0.001	1.000	
	주택점유유형 (ref.= 전세)	자가	0.511	1.728 ⁺	0.585	0.978	1.009	1.767	
		월세 및 기타	0.701	1.705	0.284	0.277	6.092	6.153 ⁺	
	그 외 유형 (ref.= 부모+아동 유형)		0.448	0.943	0.774	0.852	0.935	1.107	
지역 특성	대도시 (ref.= 중소도시/읍면지역)		0.347	1.267	1.804	3.134 [*]	0.221	0.404 ⁺	
상수항			1.053		-10.430 ^{**}		11.484 ^{**}		
사례수			296						
Log likelihood			-214.382						
Pseudo R ²			0.2354						

+: p<0.1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과 영아기 보육유형 선택 간의 관계를 종단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중심추세분석 결과 여성의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참여 상태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한 각 집단은 ‘경력단절형’,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 ‘지속참여형’이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경우 출산 후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다가 3~4차 년도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과 보육선택간의 관계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노동시장 참여유형에 따라 보육선택에 차이를 보였다. ‘지속참여형’은 ‘경력단절형’에 비해 기관보육, 개인대리보육을 더 선호하였고,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경우 ‘경력단절형’과 비교하여 직접보육보다는 기관보육을 더 선호하였다. 분석시기인 3차 년도에는 ‘경력단절형’과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미취업 비중이 유사한 점을 미뤄볼 때 보육선택은 단순히 노동시장 참여여부뿐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보육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가계생산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경력단절을 선택할 때 노동시장 참여나 보육(가사노동)을 통한 효용과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의 보육 지원은 크게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¹⁵⁾으로 나뉜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녀 보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반면 보육료 지원 사업은 기관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자녀양육수당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노동공급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영선, 2014). 따라서 여성의 노동력 활용의 측면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확대보다 보육료 지원의 확대 및 보육기관의 확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참여형’의 경우 다양한 개인대리보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분석결과 ‘지속참여형’은 기관보육보다 개인대리보육을 더 선호하였다. 개인대리보육의 대부분이 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임을 생각해보면, 이 결과는 세대 간 보육의 선호를 보여준다. 세대 간 보육은 공공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호되는 유형으로 사회적 위험에 가족의 자원이 활용되는 것이다(윤성호, 2016). 실제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모의 시장 노동시간 대비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은 큰 격차가 있었다(홍승아 외, 2010). 이 경우 개인대리보육을 활용할 수 있는 취업모는 개인대리보육을 사용하여 보육의 틈을 메꾸지만, 이용가능한 자원이 없는 경우 노

15)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지원되는 제도임. 2020년 기준 86개월(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고, 개월에 따라 10~2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동시장을 이탈하게 된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관보육 이용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 대리보육의 대부분이 조부모에 의한 세대 간 보육인 것은 다른 종류의 개인 대리보육의 부재를 의미한다. 2015년 이후 개인대리보육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신설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돌보미의 질과 지속적인 수급과 같은 제도 내부의 문제 해결과 양육지원체계 내에서의 아동돌봄서비스 제도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권미경, 2019).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연한 보육시간과 믿을 수 있는 질의 기관보육 그리고 다양한 개인대리보육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분석시기인 3차 년도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상태였지만 기관보육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기관보육 시간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을 한다(강경미·이승연, 2016). 즉,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관보육은 그 시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보육시설 입소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형’과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분석결과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과 ‘지속참여형’ 사이엔 노동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지속참여형’은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전일제/정규직 노동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경력단절 후 재진입형’은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시간제/비정규직 노동의 비중이 높았다. 시간제 근무는 전일제 근무보다 일-가정양립에 용이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안정한 일자리는 지속적인 경력단절을 야기하여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한다. 실제로 재취업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일 경우 상용직에 비해 다시 일을 그만 둔 횟수가 증가하였다(최미향·유명, 2019).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고학력 여성으로 하여금 일자리 질 하락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한다(최효미, 2014).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는 재진입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의 부족으로 친인척에 의한 개인대리보육과 베이비시터 등 외부인에 의한 개인대리보육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두 유형은 대리보육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보육 제공자가 가족과 외부인으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입된 개인대리보육의 사례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작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대리보육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육유형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변화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집단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분석한다면 새로운 유형이 도출 될 수 있다. 또한 관련해서 본 연구는 10년간의 노동시간 종단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 많은 결측치가 있었고, 이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의 사례수가 축소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없는 여성의 자료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도출하고, 많은 사례수를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의 노동참여와 노동시간만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고용조건은 고려되지 못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의 경우 시간제/비정규직 근로가 많다는 점에서 고용조건은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한국아동패널에서 시간제/비정규직의 비율이 16%이하로 나타나 근로조건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노동시장 근로조건도 고려한 노동시장 참여유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미·이승연(2016).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업주부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질적 탐색”. 육아지원연구. 제11권 제4호. 137-172.
- 구명숙·홍상욱(200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4권 제4호. 531-546.
- 권미경(20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및 과제”. 육아정책포럼. 제60권. 18-31.
- 권순원·이영지(2010). “여성의 경력단절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재진입”. 기업경제연구. 제39권 제1호. 45-57.
- 김나영·황선영(2020). “양육형태 선호와 실제의 차이가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아 양육모를 대상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2호. 181-204.
- 김영미·류연규(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양육 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환경의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89권. 215-236.
- 김지경(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42권 제8호. 65-76.
- 김지경·조유현(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3호. 181-207.
- 김지영(2015). 돌봄의 세대 전가와 노동 시장의 돌봄 분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진미(2014) “영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형태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제86권. 239-258.
- 김진원(2020). 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주(2016).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연(2010) “우리나라 중, 고령 여성의 생애 노동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코호트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3호. 141-169.

- 로널드. 에렌베르크(2009). 현대 노동경제학: 이론과 공공정책. 한홍순(역). 서울: 퍼스트북. (Ehrenberg, R. G,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Boston: Person Addison Wesley, 2008)
- 민현주(2012).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제34권 제1호. 53-72.
- 민현주·이수경(2018)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지위 변화 유형화: 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4권 제2호. 169-194.
- 박미희·홍백의(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4호. 21-49.
- 박선옥(2008).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4호. 831-847.
- 박수미(2003). “한국여성들의 두 번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제1호. 43-80.
- 박정선(2000). “한국 아동보육 서비스에서 관민의 관계유형의 구조와 특성”.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1권. 281-305.
- 배성희(2011). “취업모의 영아보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총. 제15권 제2호. 21-29.
- 보건복지부(2019a). 2019년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19b).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년도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육아정책연구소.
- 손경화·조복희(201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과 보육선택”.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7호. 1-18.
- 송주미(2000). “한국보육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0권. 193-218.
- 안재진·김은지(2010).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제79권 제2호. 5-36.
- 여성가족부(2017.05.30).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하루 평균 시간활용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1_N017&conn_path=I2 에서 2021.09.03. 인출.
- 예지은·진현·조현국·이민훈·박준·백성욱·이동원(2010).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CEO 인포메이션. 제771권 제1호. 1-23.
-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2014). 끝나지 않은 혁명: 성 역할의 혁명,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도전. 주은선·김영미(역). 서울: 나눔의집.

- (Esping-Andersen, Gosta,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Press, 2009)
- 윤미례·김태일(2016).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153-185.
- 윤성호(2016). “생계부양형태별 아동돌봄의 차이”.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0권 제1호. 167-185.
- 조우현(2010). 일의 세계 경제학. 파주: 法文社
- 조우현·황수경(2016). 새로운 노동경제학. 파주: 法文社.
- 통계청(2020.03.19). “최근 6년간 경력단절 사유별 비율. <http://kosis.kr>에서 2020.03.19. 인출.
- 최미향·유명(2019). “반복적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409-429.
- 최상설·홍경준(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기 돌봄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3호. 29-57.
- 최효미(2014).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하석철(2018). “보육 정책의 확대에 따른 아동 돌봄 유형 선택 영향 요인의 변화”. 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2호. 125-148.
- 한국아동패널(2020.03.19.). “한국아동패널소개”. <https://panel.kicce.re.kr>에서 2020.03.19. 인출.
- 한영선(2014). “정부의 자녀양육 보조금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6호. 89-107.
- 홍승아·김은지·이영미·권민정(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uncan, T. E., & Duncan, S. C.(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ory*, 35, 333-363.
- Hyde, J. S., & McKinley, N. M.(1993).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metric analys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7(2), 177-191.
- Nagin, D. S.(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157.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Kremer, M. (2006). The politics of ideals of care: Danish and Flemish child care policy compared. *Social Politics*, 13(2), 261-285.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maternal care for infa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88-208.

Abstract

Woman's Pattern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Child Care Type of Early Childhood

Yuee Kim*·Hong Kyung-zoon**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an's pattern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choice of child care type of early childhood through longitudinal data.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st-10th year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order to derive pattern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Research Question 1, this study used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To confirm Study Question 2,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was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woman's pattern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fter childbirth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Each group classifi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status is 'career interruption type', 'career interruption and reentry type',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 Second, as a result of a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pattern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child care type of early childhood,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 care options according to pattern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 prefers institutional and personal child care compared to the 'career interruption type', and the 'career interruption and reentry type' prefers institutional child care rather than direct child care compared to the 'career interruption type'. In conclusion,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in the light of the research results.

Keywords : pattern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child care choice, career interruption,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reentry the labor market,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 Researcher, Social Welfare Institute, SungKyunKwan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